

KCOPA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온라인보호부

2022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EPORT

저작권 침해 이슈리포트


불법 웹소설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 최효빈 주임

I. 배경 및 목적

최근 웹툰 산업과 더불어 웹소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웹소설 콘텐츠 가치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웹소설이라는 명칭은 웹소설(Web Novel)¹⁾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장르 소설을 통칭하는 뜻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100억~2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던 웹소설 시장은 2021년 6,000억 원 규모로 최대 60배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웹소설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문학을 전공한 문학도나 공모전에 입상을 통해 등단하여야 작품활동을 할 수 있었던 다소 한정적이었던 문학 환경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글만 쓸 줄 안다면 누구나 쉽게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웹소설 작가로 활동 중인 작가는 청소년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군으로 형성되어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웹소설은 과거 90년대 PC통신 시절부터 장르 소설이라는 분야로 존재했으며 누적 판매량 1,000만부 로 장르 소설로 상업적으로 대성공한 퇴마록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퇴마록은 1993년 이우혁 작가의 손에 의해 하이텔에서 처음 연재되었으며,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어마무시했다. 이러한 PC통신을 통한 인터넷 소설이 붐을 일으키며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함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웹소설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웹소설은 북큐브, 조아라, 문피아, 카카오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종이책 소설 시장과 비교해도 약 2.5 개 더 큰 시장규모로 성장했으며, 국내 주요 25개 출판사의 총매출을 추월하였다. 또한, 웹소설을 웹툰이나 드라마 등으로 미디어 믹스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IP 확장성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웹소설 시장이 커가는 가운데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웹소설 저작권 침해는 웹툰과 달리 카페/밴드 혹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와 같은 음성적인 형태의 소규모 공유로 발생하며, 침해 방식은 다양한 소설을 텍스트 파일로 변경하여 ZIP파일(텍스트)을 공유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불법 웹툰 사이트 서비스 방식과 비슷한 불법 웹소설 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웹소설은 웹툰과 달리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접 글자를 타이핑하여 복제하기 때문에 복제에 번거로움이 커 불법 사이트 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무너트렸다. 하루에도 수백편의 웹소설이 연재되어 올라오는데 이것을 모두 타이핑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도 타락교, 제주커피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존재했지만 텍스트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였지 웹소설 플랫폼같이 직접 연재하는 방식의 침해는 아니어서 불법 웹소설 사이트의 등장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새롭게 등장한 불법 웹소설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 웹소설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 [그림] 해외 불법사이트 내 국내 웹소설 불법 유통 사례

국내 웹소설 ‘다정한 그대를 지키는 방법’ 불법 유통 사례	
 <p>다정한 그대를 지키는 방법 김 카카오 ● 로맨스, 만화지 ● 마작물리 “[북정문학] 은디아, 속마음다. 레티사가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다. “제시, 너무 멍개오우 올더 가짜 이 날카로운 디트리안인! 가격으로 신음을 삼켰다. 레티사의 어깨를 움켜잡은 손이 달콤한 맛살로 물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저도 알아오, 제가 불평하시다니는 거. 그레도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올 때까지만 살아 주세오.” 디트리안은 레티사를 응시했다. 레티사의 어머니가 그의 가족들을 죽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의상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불렀다. 그녀의 말에 그의 얼굴이 얼마나 사납게 일그러졌는지. “반년만, 반년만 참으시면 돼오, 그랩. 참아서는 미련 이혼해 드릴게오.” 이혼, 이혼 당하여 그가 은둑 이혼 갈았다는 것도. [해외/연결은 주연해/동역내/은대남/미탈면 남주/여간의 육각계/지유계/상탈구공/정용 로만스 지향]”</p> <p>✔️✔️✔️✔️✔️</p>	<p>“누님!”</p> <p>칼리스토는 잠겨 있는 방문을 부수듯 열어젖혔다.</p> <p>“누님! 어디 계세요, 누님!”</p> <p>미친 사람처럼 방을 뒤지던 칼리스토의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졌다.</p>

1) 웹소설이라는 명칭은 2008년 조아라가 유료연재를 시작으로 2013년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 다음으로 네이버 웹소설(현재 네이버 시리즈)을 서비스하면서 웹소설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II. 조사개요

본 조사는 2022년 8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7주간 보호원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국내 웹소설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 중 가장 활성화된 사이트인 '북OO', '아OO'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웹소설명 단위로 게시물을 책정하였다. 수집 항목으로는 침해가 발생한 웹소설명, 게시물 URL, 불법사이트 서버 위치, 연재처, 웹소설 정보 등을 조사하여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표] 조사개요

- (조사기간) '22. 8. 22.(월) ~ 10. 9.(일), 7주간
- (조사대상) 국내 웹소설 불법 유통 해외 사이트(북OO, 아OO)
- (방법) 국내 웹소설과 저작권 침해 웹소설의 비교·대조를 통한 저작물 확인 및 주요 정보 수집

수집항목			
사이트명	게시물 URL	웹소설 정보	연재처

- (분석) 해외 불법사이트 내 국내 웹소설 불법 유통 실태조사

분석내용			
불법 유통량	불법 웹소설 사이트	웹소설 정보	연재처

III. 분석결과

1. 국내 웹소설 불법 유통량

불법 웹소설 사이트 내 국내 웹소설 불법 유통량을 7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두 개 사이트에서 총 9,781건의 웹소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OO 사이트를 통한 유통량은 4,692건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하였으며, 아OO는 5,089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웹소설 불법사이트 내 국내 웹소설 불법 유통량

구분	북OO	아OO
유통량	4,692건	5,089건
비중	48.0%	52.0%
합계	9,781	

2. 웹소셜 플랫폼별 침해 유통량

두 개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웹소셜을 서비스 플랫폼별로 구분하여 유통량을 확인한 결과, 기타 9,081건(35.7%) '카카오 페이지' 6,403건(25.2%), '네이버 시리즈' 4,823건(19.1%), '리디북스' 3,193건(12.5%), 문피아 1,255건(5.1%), 조아라 625건(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웹소셜 플랫폼별 침해 유통량

구분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조아라	기타
유통량	4,823건	6,403건	3,193건	1,255건	625건	9,081건
비중	19.1%	25.2%	12.5%	5.1%	2.4%	35.7%

* 유통량은 콘텐츠 하나가 여러 플랫폼에서 연재할 경우 각 플랫폼별로 책정하였음

3. 웹소셜 연재 및 완결 유통량

두 개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웹소셜의 연재 및 완결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연재중인 웹소셜을 불법 게시한 유통량은 총 2,537건으로 나타났으며, 완결된 웹소셜을 불법 게시한 유통량은 총 7,244건으로 나타났다. 북OO의 경우 연재 1,134건(24.2%), 완결 3,558건(75.8%)로 나타났으며, 아OO은 연재 1,403건(27.6%), 완결 3,686건(72.4%)로 나타났다. 두 사이트 모두 이미 완결된 웹소셜을 불법 게시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웹소셜 연재 및 완결 현황

구분	북OO		아OO		
	연재 현황	연재	완결	연재	완결
유통량		1,134건	3,558건	1,403건	3,686건
비중		24.2%	75.8%	27.6%	72.4%

4. 침해 웹소셜 연령등급 현황

두 개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웹소셜의 연령등급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이용가' 총 7,351건, '15세 이용가' 총 1,512건, '19세 이용가' 총 708건, '12세 이용가' 총 210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OO의 경우 '전체 이용가' 3,459건(73.7%), '15세 이용가' 768건(16.4%), '19세 이용가' 313건(6.7%), '12세 이용가' 152건(3.2%)로 나타났으며, 아OO은 '전체 이용가' 3,892건(76.5%), '15세 이용가' 744건(14.6%), '19세 이용가' 395건(7.8%), '12세 이용가' 58건(1.1%)로 나타났다.

●●● [표] 침해 웹소셜 연령등급 현황

구분	구분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9세 이용가	전체 이용가
		북OO	유통량	152건	768건
	비중	3.2%	16.4%	6.7%	73.7%
아OO	유통량	58건	744건	395건	3,892건
	비중	1.1%	14.6%	7.8%	76.5%

5. 침해 웹소설 장르별 현황

두 개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웹소설의 장르를 확인한 결과, ‘판타지’ 총 7,319건, ‘로맨스’ 총 3,837건, ‘무협’ 총 776건, ‘성인’ 총 355건, ‘기타’ 총 10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OO의 경우 ‘판타지’ 3,554건(61.7%), ‘로맨스’ 1,642건(28.5%), ‘무협’ 378건(6.6%), ‘성인’ 총119건(2.1%), ‘기타’ 63건(1.1%)로 나타났으며, 아OO은 ‘판타지’ 3,585건(55.5%), ‘로맨스’ 2,195건(34.1%), ‘무협’ 398건(6.1%), ‘성인’ 236건(3.7%), ‘기타’ 44건(0.6%)로 나타났다.

●●● [표] 침해 웹소설 장르별 현황

구분		판타지	무협	로맨스	성인	기타
북OO	유통량	3,554건	378건	1,642건	119건	63건
	비중	61.7%	6.6%	28.5%	2.1%	1.1%
아OO	유통량	3,585건	398건	2,195건	236건	44건
	비중	55.5%	6.1%	34.1%	3.7%	0.6%

* 유통량은 콘텐츠 하나가 여러 장르일 경우 각 장르로 유통량을 처리

6. 침해 웹소설 유통량(회차) 순위

두 개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웹소설 회차가 가장 높은 저작물을 확인한 결과, 북OO의 경우 ‘이것이 법이다’ 총 4,116회, ‘나는 될놈이다’ 총 1,826회, ‘던전 & 커맨더’ 총 1,628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OO은 ‘닥터 최태수’ 총 3,667회, ‘용사 소환당했습니다. 근데 굳이 마왕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총 2,237회, ‘이세계 검은 머리 외국인’ 총 1,809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웹소설 불법사이트 내 침해 콘텐츠 유통량(회차) 순위

순위	북OO		아OO	
	저작물명	회차	저작물명	회차
1	이것이 법이다	4,116	닥터 최태수	3,667
2	나는 될놈이다	1,826	용사 소환당했습니다. 근데 굳이 마왕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2,237
3	던전 & 커맨더	1,628	이세계 검은 머리 외국인	1,809
4	템발	1,561	목신기	1,687
5	나는 귀족이다	1,550	창작물 속으로	1,672
6	창영의 피닉스	1,495	도군	1,666
7	전생검신	1,486	던전 & 커맨더	1,628
8	일검독존	1,452	나는 귀족이다	1,550
9	사상최강의 데릴사위	1,429	전생검신	1,486
10	무협지 안으로 들어와버렸다	1,400	일검독존	1,452

IV. 맺으며

국내 웹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웹툰을 통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웹툰에 이어 웹소설까지 불법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된다면 개인의 재산권적 문제를 넘어 산업적인 문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면 URL 주소만 변경한 대체사이트가 바로 생성되며, 불법 사이트 대다수는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다보니 국내에서의 대응 역시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국내 수사기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 수사공조를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불법 사이트를 대응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불법 웹소설 사이트인 북OO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매년 웹소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플랫폼이 직접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아닌 사이버 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저작권에 사적인 측면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 사이버 범죄의 개념으로 국가 개입 여지를 높이자는 주장이다.